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

구 득 환

(대진대학교)

《 요 약 》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유럽의 고전적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제기 되었다. 종교가 사회의 규범, 제도, 질서 속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종교가 추구하는 보편성과 그 종교의 특성과도 관계되겠으나 그것은 특히 그 사회(국가)의 사상, 경제, 문화 또는 정치적 현실을 포함한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폭 넓게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을 고찰함에 있어 대순사상의 연원인 증산(甞山 姜一淳, 1871-1909), 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으로 이어지는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두갈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는 이상적 사회 기능으로써의 대순진리회의 교의 안에 함의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소의 경전인 전경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사상을 1. 평등사상 2. 재생사상 3. 교육사상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둘째는 실천적 사회 기능으로써의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의 결과를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 머 리 말

종교는 개인은 물론 그를 둘러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의 관

계속에서 사회변동과 더불어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왔다.

이러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일찍이 19세기 유럽에 있어서 Marx, Weber, Durkheim, Simmel 등과 고전적 사회학자들에 의해 제기 되었다 (William M. Newman, 1974:3-12). 특히 종교를 경제구조의 반영이자 결과로 인식한 Marx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보수적이고 현상유지 적이라고 생각한 반면, Weber는 종교와 사회경제제도와의 관계, 특히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오경환, 1979: 149-153).

이에 비하여 Durkheim은 종교의 역할을 하나의 사회적인 실재, 다시 말하면 인간 생활 공동체를 혼합 구성하고 유지하는 도덕적인 힘으로 정의하였다. 즉, 종교적 신앙과 의식이 사회 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그의 기능주의적 분석방법은 현대사회이론의 기초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비록 서로 다른 종교 이론을 제창하면서도 그 사회의 이해를 위해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 연구는 사회적 관점과 역할을 중시한 것으로, 사회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방법 또는 과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그 동안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특히 한국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사회개혁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것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개별 종교 전통들의 교리내용과 信仰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분명히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종교적 교리와 信仰을 통하여 개인 내면 생활의 安心立命을 얻었고,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기층민중들의 어려운 경제적 정황을 타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정치적 변화에 종교적 힘을 직,간접으로 행사하게 됨으로써 종교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사회변화에 참여하여 왔다(윤이흠, 1987: 1).

M. Weber는 종교가 기존 사회제도와 구조에 변동을 도입할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체제의 구조와 변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기독교의 윤리가 그 본래의 창조적 성취욕구와 생산성 및 능률 향상을 그 기저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즉, 종교 정신

이 시간적으로 앞선 사회의 폐쇄성을 혁파하고 시민혁명의 실질적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조 말엽의 신종교의 태동은 기존 사회질서가 쇠락하는 해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을 종교의 절대세계에 투사시킴으로써 구조적 모순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비 세속적 종교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조선조 말엽의 신종교발생이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과 무관 할 수 없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자체의 사상체계에 현실사회에 대한 개혁적 의식이 암의 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종교가 사회의 규범, 제도, 질서 속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종교의 영향과 결과)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종교가 추구하는 보편성과 그 종교의 특성과도 관계되겠으나, 그것은 특히 그 사회(국가)의 사상, 경제, 문화 또는 정치적 현실을 포함한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발표자는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을 고찰함에 있어 대순사상의 연원인 증산(甞山 姜一淳, 1871-1909), 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으로 이어지는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두 갈래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이상적 사회기능으로서 대순진리회의 교의 안에 함의되고 있는 종교의례의 의미 또는 신자교육의 내용을 토대로 한 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 현 사회에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소의(所依)경전인 '典經'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는 실천적 사회 기능으로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점을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의 결과를 몇 가지 자료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후 어떠한 기능을 좀 더 추구하고 발휘해야 하는가 검토하고자 한다.

II. 대순사상과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기능

19세기 후반의 동학운동은 조선조의 보수적 체제유학사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사회를 개혁할수 있는 새로운 신념체제를 제시하고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에 대항할수 있는 신앙단체를 형성하며 양이(洋夷)와 특히 일본에 대항해서 보국안민하고자 하는 사상적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윤이흠: 105). 따라서 사상적 동기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민족적 위협속에서 국가 보위의식의 팽배와 국난 극복의 민족구원 사상의 출현, 둘째 서학으로 대변되는 천주교의 위협적 도전을 민족적 주체 자립의식으로 응전하려는 동학의 출현, 셋째 18세기 이후 변질된 조선왕조 양반 사회의 제반 모순, 넷째 기본 수취(收取)체제인 三政의 문란 및 지도이념의 난맥상, 다섯째 실학사상에서의 현실비판과 개혁사상에 영향받은 피지배 계층의 의식의 향상과 자각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신 종교들은 사회제도와 구조에 대한 주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통하여,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한 나름대로의 사상과 의지적 방법을 표출시키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대순사상은 증산(甞山 姜一淳, 1871-1909)을 교조로 하며 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 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6)으로 맥을 잇는 일련의 종교사상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조의 능동적 변혁태도를 보이고 있는 천지공사(天地公事) 사상은 한국근대의 사회변동을 종교적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커다란 획을 긋고 있다. 따라서 증산은 당시의 현실적 질곡에서 시달리던 기층민중들의 구제를 절실하게 의식하였다. 그러한 현실인식은 변혁된 종교적 사유를 통하여, 이상세계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종교사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대순 사상의 목적 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¹⁾

이러한 대순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순진리회의 소의 경전인 전경(典經)에는 증산 재세 당시의 사회상황과 그에 따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모순의 해결책을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증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1)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지상신선(地上神仙) 실현·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세계개벽(世界開闢) (전경 교운 2장 32절)

대순진리회는 이상적인 측면과 함께 종교이념의 실천적인 활동에도 주력하여 왔다.

그러므로 본 발표자는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을 고찰함에 있어 먼저 전경(典經)을 바탕으로, 증산이 제시하고 행한 사회적 개혁(또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관점)의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경(典經)은 행록(行錄) 5장, 공사(公事) 3장, 교운(教運) 2장, 교법(教法) 3장, 권지(權智) 2장, 그리고 제생(濟生), 예시(豫示)의 총 7편 17장으로 편성되어있다.

이러한 전경의 전체 내용 중에서 본 주제인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는 거의 모든 내용에서 대부분 -公事, 教運, 教法-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제생(濟生)편에서는 의료를 통한 사회구제 사상을 광구광제(匡救匡濟)라는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산의 광구광제(匡救匡濟) 사상은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가 곧 나의 사람”(전경 교법 1장 24절)이라는 말속에 총체적으로 나타나있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전경을 중심으로 대순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봄에 있어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큰 줄거리인 1. 평등사상, 2. 제생사상, 3. 교육사상으로 대별(大別)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평등사상

증산은 조선후기 사회의 현실적 폐습과 한계를 깊게 인식하고 각종 사회제도의 모순과 그 개혁 방법을 이상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성별의 평등과 계급간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유교의 폐습에 젖어있던 당시의 사회에서 상등적 평등의식을 고양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전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전경 공사 1장 32절)

「후천 에서는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전경 교법 1장 68절)

『大丈夫, 大丈夫』 (전경 교법 2장 53절)

『사람을 쓸 때에는 남녀노약을 구별하지 않느니라.』 (전경 교법 2장 40절)

이러한 전경 상의 내용들은 당시 조선 사회의 女性卑下의식을 바로잡아 성별에 관계없이 「그 닭은 바」(교육)를 전제로 하여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이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의 여성들이 차별화 되어 정치와 교육은 물론 각종 사회참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상황임을 인식할 때 시대를 앞선 현실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켜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하는 이른 바 상승적 평등(acsetion)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윤재근, 1992: 204 - 205).

증산은 남녀 평등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불평등한 사회에서 계급간의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위와 귀천을 떠나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인존(人尊)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짚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 (전경 교법 1장 9절)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운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 (전경 교법 1장 10절)

조선후기 사회에서 불평등의 원형이었던 반상(班常)의 차별, 남존여비의 불평등을 철폐하려는 증산의 사회인식은 당시 조선후기 사회의 사회적 모순과 한계를 깊게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증산은 사회제도의 모순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하여 ‘해원과 상생’ 그리고 人尊이라는 대순사상의 큰 체계에서 계급간의

평등, 남녀간의 평등, 그리고 교육의 평등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평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제생사상

증산의 제생사상은 광구광제(匡救匡濟)라는 틀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증산은 성인의 도와 응패의 술에 관하여 종도인 원일에게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제민혁세(濟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정세하리라...”(전경 교운 1장 16절)고 함으로써 제생과 제민이라는 당시의 궁핍한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생민구제(生民救濟)라는 현실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산의 현실인식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천냥으로 동곡에 약방을 개설’함으로써 상생의 의미를 실제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 정미년 4월 어느날, 돈 천냥을 백남신으로부터 가져오셔서 동곡에 약방을 차리시는데 이때 약장과 모든 기구를 비치하시기 위하여 목수 이경문(李京文)을 불러 그 크기의 치수와 만드는 법을 일일이 가르치고 기한을 정하여 끝마치게 하시니 약방은 갑칠의 형 준상의 집에 설치하기로 하셨도다.」 (전경 공사 2장 7절)

「약방을 설치하신 후 ‘원형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재전주동곡 생사판단(元亨利貞奉天地 道術藥局 在全州銅谷 生死判斷)’이란 글귀를 쓰셔서 붙사르셨도다...」 (전경 공사 2장 9절)

증산은 제생(濟生)을 원하는 수많은 기층 민중에게 의통(醫通)을 배풀었다. 증산의 이러한 제생 행적은 다음과 같이 전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예는 요통(행록 2장 19절), 옆구리를 발로 채여 심한 오한(행록 3장 59절), 골절이 쭈시고 입맛을 잃어 식음을 전폐하여 사경을 헤 메이게 되어(행록 4장 19절), 단독(행록 4장 25절), 학질(행록 5장 12,13절), 해췌병(공사 1장 20절), 설사, 청맹(공사 1장 21절)등 실로 광범위하게 배풀어진다.

또한 전경의 '제생'편에서는 1절에서 44절의 전 내용에 걸쳐 증산의 실제적인 의통(醫通) 행적을 넓고 깊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분만, 횃배앓이, 치질, 간질병, 급병, 체증, 문둥병, 각통, 두통, 종창, 폐병, 괴질, 토질, 부증, 창증, 천포창, 요통, 이질, 설사, 단독 등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질병에 관하여 일일이 의법(醫法)을 행한 실제 기록을 볼 수 있다.

「환자의... 경락(經絡)과 장부(臟腑)를 낱낱이 가리키시며 이 곳은 어디이고 저곳은 어디이며 어느 장부에서 병이 났고 또 누릿누릿하게 장부에 끼어 있는 것이 담이라 하시며 하나하나 환자가 알도록 가르쳐 주셨도다.」 (제생 1절)

특히 증산의 이러한 의료 활동은 제생(濟生)을 위한 단순한 의술이라기 보다는 相生과 解冤에 기초한 의통(醫通), 또는 의법(醫法)으로의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3. 교육사상

조선사회는 계급의 차별, 남녀의 차별로 인한 사회제도로 하층민중이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에 증산은 기층민중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행하였다.

「증산은 재세(在世)시에 당시의 금구군 초처면 내주동(金溝郡 草處面 內住洞) '정남기(鄭南基)'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 서동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심이 비범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높았도다.」 (전경 행록 제1장 20절)

증산은 『가장 두려운 것은 博覽博識이니라.』고 하여 널리 보고 듣고 체험하여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박람박식을 위해서, 그는 종도의 집에 대학교를 지정하고 나서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고 말한다. 여기에 가르침과 배움이 있고, 무지에서 벗어나 앎이 생기고, 앎이 생김으로써 인생의 갈 길을 찾아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교육은 무지로 인한 나의 어리석음을 칭찬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라 하겠다. 또한 증산은 이름난 옛 명사들의 행실(行實)을 종도들에게 수시로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인격의 고매(高邁)함과 의로움을 의식하도록 하였다.

특히 증산은 이마두가 벽을 쌓고 있던 동과 서를 교류하게한 선구자라 하여 높이 평가한다.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하고, 그가 죽은 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양을 본딴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에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끈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음으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전경·교운 1장 9절)

이상과 같은 명인의 행실에 대한 예를 든 사람은 사회질서의 회복과 거기에 따라야 할 인륜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인륜이나 사회 질서가 천상의 모본(模本)을 따르는데 증산의 독특한 측면이 있다. 결국 이 세상의 문물은 종교를 기초로 한 문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증산 사상에 있어서의 교육 이상을 알아보는 제1차적 접근은 증산 사상에서의 교육 목표를 알아보는 것이 될 것이다. (윤재근, 1992, 199)

증산은 당시의 어려웠던 현실 속에서 기층민중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내의 교육장에 해당하는 서당에서의 훈육과 더불어 그 이외의 장소에서 주변의 모든 여건을 활용하여 종도들과 여타의 민중들에게 적절하게 가르침을 준다. 증산은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고도의 상징성과 은유(隱喻)를 사용하여 교육사상과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시 학교교육의 문제점까지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

계의 역사에 부처 신인(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 (전경 교운 1장 17절)

『상제께서 김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 (전경 교운 1장 32절)

또한 증산은 실천적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증산의 사상에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논급한 것을 찾아 보면

『願師不師...有師無學 其師何立』 (전경 공사 3장 40절)

『옛적에 신성이 입극하여 聖, 雄을 겸비해서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軍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 (전경 교법 3장 26절)

고 표현한데서 바람직한 교사상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스승이 스승으로써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다듬어 사도(師道)의 권위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서 제자를 올바르게 교육 시켜야 할 것이라는 「교사다움」의 참모습을 자각시켜준다. 증산이 제시한 이상적인 정치와 교화의 유형 속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자의 자질로 강조되는 聖과 雄의 적절한 조화로 지도자의 입장과 아울러 피지도자, 피교육자의 견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음과 양의 대조적인 입장을 조화롭게 간직한 상태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발휘하고 이끌어 가는 교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윤재근, 1992: 208).

증산이 제창한 사상의 종교적 가르침은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러한 증산사상의 교육적 내용은 철학적 사유가 주가 되었다기 보다는, 증산사상의 다양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 민중들에게 훈육시키는,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 개념을 머리에 이고, 표방하는 나름대로의 중심적 전통(home

tradition)에 기초한 이상세계를 실현하는데 그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산사상의 교육관은 특정 종교의 교육을 위한 교화(敎化) -indoctrination- 내용이 아닌, 특정종교의 교리나 의식을 뛰어넘어 인간성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박선영, 1981 : 69)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증산의 교육 사상은 오늘날 대순사상과 대순진리회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하겠다.

III.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기능 : 3대 기본 사업

지금까지 앞에서는 소의 경전인 전경을 중심으로 증산이 재세시에 행한 평등, 교육, 제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증산이 당시 사회의 현실인식을 통하여 피폐된 민생을 구제하려는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의지와 실행을 보임으로써 사상의 개혁은 물론 사회제도(반상제도의 폐지, 남녀평등, 교육평등, 천인우대 등)의 개혁을 포함하는 폭 넓은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인식과 처방은 당시 조선후기 사회의 근대적 변동과정에서 이상적이고 사회 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획을 긋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증산의 사회개혁과 광구광제(匡救匡濟) 사상은 증산과 정산, 그리고 우당(牛堂 朴漢慶)으로 이어져 대순사상을 모체로 하는 대순진리회가 오늘날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큰 줄기와 기본 틀이 되고 있다.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는 1975년부터 1.구호자선 사업 2.사회복지 사업 3.사회교육 사업을 중단의 3대 기본 사업으로 설정, 실행하여 오고 있다.

1. 구호 자선 사업

구호자선 사업은 불우이웃 돕기(고아, 병자, 노약자, 빈민 등), 신체장애자 돕기, 이재민 돕기 등의 구제사업을 펴 나가는 것으로, 1975년부터 시행하여 1990년까지 2억 4천 142만 9,410원의 구호자선 사업비를 지출했으며 이후 97년까지의 총액은

13억 5천 110만 4,910원으로, 90년대 들어서 대폭 증액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1참조>

특히 IMF 사태로 인하여 국내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1998년에는 매월 351명씩 연인원 4,212명에게 매월 1인당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총액 4억 6천 530만원)하였으며, 실업기금 성금 3억원을 포함, 이웃돕기 성금으로 6억 4천 835만 4,000원을 기탁하였다.

< 표 1 > 구호자선사업 연도별 실적 현황

(단위 : 원)

년 도	금 액	년 도	금 액
1975년	122,100	1984년	19,474,500
1976년	269,800	1985년	23,944,500
1977년	1,173,250	1986년	18,814,500
1978년	765,200	1987년	11,577,000
1979년	3,810,620	1988년	22,778,300
1980년	3,810,620	1989-1990년	241,429,410
1981년	17,265,700	1991-1997년	1,109,675,500
1982년	18,820,100	1998년	1,113,654,000
1983년	21,556,100	총 계	2,464,758,910

특히 1998년 1년간 구호 자선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총 11억 1천 365만 4,000원에 달했다. 1975년부터 1998년까지의 구호자선사업비 총액은 24억 6천 475만 8,910원으로 나타났다.

2. 사회 복지 사업

사회복지 사업은 새마을 사업, 자연보호, 화재방지, 거리정화 운동, 지역개발 사업, 방위성금, 농촌 일손 돕기, 미아 보호 운동, 경로잔치, 독립 기념관 건립 성금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시행되었다.

1975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 사업은 앞서와 같은 분야에 1998년까지 16억 753만 6,683원을 후원금, 성금, 찬조금 등으로 기탁하였다. <표2 참조>

이와는 별도로 대순 종단은 해원상생의 교리를 의료분야에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의료법인 대진 의료재단을 설립, 분당제생병원을 98년 개원하였으며, 또한 동두천과 속초에 제생병원을 신축 중에 있다.

<표2> 사회복지사업 연도별 실적 현황

(단위 : 원)

년 도	금 액	년 도	금 액
1975년	168,480	1984년	20,290,800
1976년	495,050	1985년	12,747,900
1977년	222,000	1986년	259,344,700
1978년	1,029,460	1987년	156,099,256
1979년	4,860,850	1988년	79,455,150
1980년	3,127,097	1989-1990년	400,263,800
1981년	4,126,940	1991-1998년	642,629,200
1982년	11,415,000		
1983년	11,261,000	총 계	1,607,536,683

3. 사회 교육 사업

대순종단은 장학 사업과 육영 사업을 교육의 2대 사업으로 설정, 1976년 3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1) 장학사업

1976년 3월에 대순 장학회를 발족하여 매년 전, 후반기에 중, 고, 대학생 중에서 성적우수자 및 불우 학생들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997년까지 연인원 6만 2천 130명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131억 8천 547만 2,010원

이었다. 또한 1998학년도에는 대학생 1천 692명에게 19억 471만 7,500원, 고등학생 3,907명에게 10억 5천 766만 9,030원, 중학생 1천 95명에게 1억 4천 289만 7,080원을 지급하였다. (총 6천694명, 31억 528만 3,610원)

2) 육성사업

1984년 1월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대진대학교를 비롯하여 6개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충북 괴산에 대학을 건립 중이다.

IV. 맺 음 말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그 동안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특히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는 사회변동에 사회개혁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또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왔다.

한국 근대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몇몇의 새로운 종교들은 사회제도와 구조에 대한 주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통하여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한 나름대로의 사상과 의지적 방법을 표출 시켜왔다.

대순사상은 증산과 정산, 우당(牛堂 朴漢慶)으로 맥을 잇는 종교 사상으로, 사회구조의 능동적 변혁태도를 보이고 있는 천지공사(天地公事) 사상은 한국근대의 사회변동을 종교적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커다란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증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순진리회는 이상적인 측면과 함께 종교 이념의 실천적인 활동에도 주력하여왔다. 대순의 사회적 기능을 발표자는 평등사상, 제생사상, 그리고 교육사상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평등사상에 있어서는 사회제도의 모순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하여 해원과 상생, 그리고 人尊이라는 대순사상의 큰 체계에서 계급간의 평등, 남녀간의 평등 그리고 교육의 평등을 통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인간의 존귀함을 제시하고 있

다.

제생사상에 있어서는 상생과 해원에 기초하여 의통과 의법을 베풀어 생민구제라는 현실처방을 실현하고 있다.

교육사상에 있어서 증산은 기층민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도의 상징성과 은유를 사용하여 교육 사상과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바람직한 교사와 교육의 문제점까지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역할은 그 종교가 사회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치를 종교교의 체계 내에 어떻게 함의하고 있는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증산의 사상적 체계는 조선후기 사회에서의 피폐된 민심안에서 상극과 저항의 이념을 해원과 평등, 그리고 광구광제라는 공사(公事)에 의하여 상생의 길로 나가는 새로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의 변동과정에 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 전경(1974).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진리회 출판부.
- 강돈구(1992). 한국 근대 종교와 민족주의. 서울 집문당.
- 오경환(1998).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 박선영(1981). John Dewey의 종교교육관. 사대 논총 1집, 동국대학교.
- 박승길 외(1990). 한국의 종교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 윤재근(1992). 증산사상의 교육원리에 관한 연구. 대순논집. 대순진리회 출판부.
- 윤재근(1997). 한국 근대 사회 변동과 대순사상. 한·일 양국의 사회변동과 종교.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 윤기봉(1998).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 종교교육학연구 7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윤이흠(1987). 한국 사회변동과 종교의 대응. 사회변동과 한국의 종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